

진짜 내 소원

이선미 글·그림



주제	그림책을 읽고 나에 대해 탐색하여 표현하기
권장 차시	8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나다움, 자아, 소원, 소망, 행복, 표현, 교육연극, 정지장면, 즉흥극, 그림책 만들기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5-04]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6국05-05]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미술 [6미01-01] 자신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6미02-05]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작성	창원 풍호초등학교 박경미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아이가 호리병을 문지르자, 소원을 들어준다는 지니가 나타나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 첫 번째 소원으로 아이는 공부를 잘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1등을 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다. 소원의 주인이 엄마였다. 두 번째 소원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아빠가 새 차를 사게 된다. 그 또한 아이의 진짜 소원은 아니었던 것이다.

지니는 진짜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서 너에 대해 잘 알아야만 진짜 네 소원을 알 수 있다고 조언해준다. 좋아하는 꽃, 색깔, 음악 또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세 번째 소원은 일 년 뒤에 말하겠다고 한다. 일 년이 지난 뒤 아이는 세 번째 소원을 말하려 지니를 부르는데... 과연 아이의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질까?

■ 학습 목표

- 그림책을 읽고 작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그림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정지장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일상생활의 경험을 즉흥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그림책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특징을 탐색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나’에 대한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

■ 수업 준비

이 책은 ‘나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 행복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잘 담았다. 이 책은 이러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림도 매력적이다. 물감으로 자유롭게 그린 선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면, 그리고 면을 채운 다채로운 색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주인공 캐릭터는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니는 다양한 색을 써서 화려하게 표현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우리는 미취학 시기부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니?”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기 이해와 자기 탐색은 중요한 바탕이 된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자기를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학습 참여를 높였다. 또한 그림책 읽어주기, 교육연극,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수업 준비물

색 도화지, 도화지, 필기구, 다양한 색칠 도구, 풀, 스크랩북(5P)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소원 알아보기 - 내용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 그림책 읽어주기 - 내용 확인하기 -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 책 속 질문에 답하기 - 파라텍스트 탐색하기 	3차시
읽은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활동하기 (나를 글로 표현하기,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 인상 깊은 장면으로 교육연극 하기 (정지장면으로 나타내기, 즉흥극 하기) - 나에 대한 그림책 만들기 - 활동 소감 나누기 	4차시

읽기 전

1. 가족의 소원 알아보기

- 가족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가족과 함께 ‘소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 가족의 소원은 무엇인지 알아온 것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예: 할머니의 소원은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해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라고 하셨어요.

아빠의 소원은 나중에 나와 함께 빵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사나 파티셰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아르바이트를 시켜 달래요. 갑자기 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동생의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집에서 아주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컴퓨터도 여러 대 들여놓고 싶대요. 앞으로 동생에게 잘해줘야겠어요.

- 이번에는 ‘내 소원’을 주제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친구가 자기 소원을 말할 때는 귀를 기울여 듣고 응원하는 눈빛과 말을 건넵니다.

예: 내 소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와 학원을 다녀오고 나면 밤이 되어버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주말에만 할 수 있어서 그게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돈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

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소원은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며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내 소원은 열린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를 보면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면서 나에게 는 공부하라고 합니다. 나는 아빠가 제일 부럽습니다.

■ 가족들은 어떤 소원을 가장 많이 빌었는지 주제별로 묶어 봅시다.

우리 반 친구들은 또 어떤 소원을 가장 많이 빌었는지 주제별로 묶어 봅시다.

이러한 활동으로 가족들과 우리 반 친구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가족들의 소원 : 건강 > 행복 > 경제적인 안정 순서

우리 반 친구들의 소원 : 자유로운 생활 > 행복 > 경제적인 안정 순서

■ 지금까지 ‘소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소감을 나누어 봅시다.

예: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의 소원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나와 같은 소원을 말한 우리 반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내 소원이 공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건강, 행복, 자유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 소원을 말하니 왜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친구가 내 소원을 말할 때 “그렇게 될 거야.”라고 응원하는 말을 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을 소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선미 작가의 『진짜 내 소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 내용 예상하기

■ 앞표지를 보여주며 책 제목과 작가 이름, 출판사를 읽어줍니다.

■ 앞표지와 뒷표지를 펼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예: ‘진짜 내 소원’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요. 글씨체가 특이하고 만져보니 튀어나와 있어요. 제목을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바탕이 하얀색이라 알록달록한 글씨가 더 잘 보여요.

오른쪽 구석에 놓인 노란색 호리병에서 연기 같은 것이 구불구불한 선 모양으로 나와요. 그게 꼭 사람의 얼굴처럼 보여요. 눈과 코, 손, 왕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신기해요.

다양한 색깔이 화려하게 쓰여서 환상적인 분위기에요.

뒷표지에도 얼굴, 팔, 다리, 왕관의 형상이 보여서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어깨에는 새가 앉아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형상이 “네 소원은 뭐야?”라고 물어봐요.

■ 어떤 이야기일지 예상해봅시다.

예: 호리병이 나오니까, 호리병에서 나온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옛날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니가 나와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진짜 내 소원’을 찾아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읽는 중

1. 선생님이 그림책 읽어주기

- 선생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림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Tip.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글보다 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내용 확인하기

- 주인공이 '공부 잘하게 해 줘.'라고 소원을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주인공이 아니라 엄마가 일등을 했어요.
-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공부를 잘하는 것은 주인공이 아니라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주인공의 진짜 소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 다음에 주인공이 '그럼 이번엔 돈을 많이 벌게 해 줘.'라고 소원을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아빠에게 새 차가 생겼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주인공이 아니라 아빠의 소원이었어요.
- 그렇다면 주인공은 왜 자기 소원이 아닌 엄마나 아빠의 소원을 말했을까요?
예: 주인공이 평소에 엄마와 아빠의 소원을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인공이 엄마나 아빠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착한 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인공은 한 번도 자기 소원이나 꿈, 희망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3.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을 고른 까닭을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예: 주인공이 '세 번째 소원은 일 년 뒤에 말할게.'라고 말한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았어요.
저라면 '세 번째 소원은 네가 100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예: 지니가 '그러니까 그 소원은 이미 다 들어 준 거라고.' 말하고 사라져버린 장면이요.
옛이야기처럼 세 가지 소원을 말할 기회가 생겼는데 날려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오면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생각해둬야겠어요.
예: 주인공이 소원을 백 개나 쓰고 있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일 년 동안 주인공이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4. 책 속 질문에 답하기

- 책 속 지니는 주인공에게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놀이 방법】

① 여러 장의 종이에 책 속 질문을 그대로 옮겨 씁니다.

- 꽃을 좋아하니? 어떤 꽃이 제일 좋아?
-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 너를 기분 좋게 하는 음악은 찾았니?
- 네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니?
- 네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은 뭐야?
- 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가 어떻게 달라?
- 네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야?

시간이 많으면 친구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질문을 더 적습니다.

② 모둠에서 답할 순서를 정합니다.

③ 한 명씩 돌아가며 질문을 뽑고 그 질문을 모둠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④ 그 질문에 모듬의 친구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답을 합니다.

⑤ 그 질문에 답하기 힘든 사람은 ‘일 년 뒤에 말할게.’라고 말합니다.

⑥ 질문지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⑦ 우리 모듬의 긍정적인 응원의 말을 만듭니다.

예: 너는 참 멋져!/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워! 등

⑧ 질문지가 더이상 없으면 질문지를 찢어서 꽃가루를 만듭니다.

⑨ 칭찬 샤프 터널을 만듭니다. 한 사람씩 통과할 때마다 꽃가루를 뿌리고 응원의 말을 해줍니다.

5. 파라텍스트 탐색하기

■ 파라텍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파라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추측해 봅시다.

각자 찾은 부분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교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 앞면지와 뒷면지의 호리병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왜 다르게 했을까요?

제목 ‘진짜 내 소원’의 글자 색깔은 밝고 화사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배경 그림 없이 바탕을 흰색으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 파라텍스트란?

그림책의 본문에 부가적인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책의 형태나 크기, 제본, 면지, 종이, 서체, 레이아웃, 후가공 등의 요소를 말합니다

요소	구성	내가 생각하는 의미
면지	앞면지는 무채색의 호리병이, 뒷면지에는 컬러가 있는 호리병이 그려져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던 아이가 자신의 색깔을 찾았다는 의미인 것 같다.
서체	제목의 글씨체가 BTS의 <다이너마이트> 글씨체와 똑같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려고 그 글씨체를 가지고 온 것 같다./ 작가가 BTS를 좋아해서 그 글씨체를 쓴 것 같다.

제본	양쪽 페이지가 활짝 펼쳐져 있어 가운데는 실 같은 것이 보인다.	독자들이 가운데 그림까지 가려지는 것 없어 감상할 수 있게 이렇게 책을 만든 것 같다.
----	-------------------------------------	--

읽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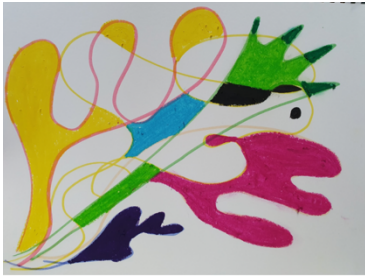
1. 선택 활동하기

■ 나를 글로 표현해 봅시다.

예: 나는 늦게까지 안 자고 늦게까지 안 일어나요.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해요. 뛰어노는 것보다는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해요.
 친구들과 싸우는 것은 정말 싫어해요. 친구들과 싸우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싫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책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책에 잘 빠져들어요.
 게임이 더 재미있어서 ‘책 읽어야지’하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막상 책을 읽으면 재미있어요. 특히 그림책은 글이 많지 않고 그림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나는 이런 내가 정말 좋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겠지만 나는 내가 좋아요.

■ 나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진짜 내 소원』에 사용된 기법을 활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작가는 물감으로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표현했어요.
 자유롭고 알록달록한 선을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재료로 표현해 봅시다.
 선이 지나간 자리에 만들어진 면을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 봅시다.
 특정 형태(눈, 코, 얼굴, 팔 등)가 보이는 부분에는 그것이 드러나게 강조하여 표현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등 주제를 정해서 그림을 더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콜라주 기법으로 잡지 등에서 그림을 오려서 붙여도 좋습니다.
 간단한 글을 써넣어도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엮어도 좋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많아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글자가 눈에 띄면 일단 읽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2. 인상 깊은 장면으로 교육연극하기

■ 인상 깊은 장면을 정지장면으로 나타내기

1. 자기 모둠에서 표현할 인상 깊은 장면을 정합니다.

예: 호리병에서 지니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주인공이 깜짝 놀라는 장면

지니가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 주인공이 기뻐하는 장면

아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비는 장면

엄마가 일등을 하는 장면

아빠에게 새 차가 생기는 장면

주인공이 꽃을 보고 좋아하는 장면

주인공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

세 번째 소원이 날아가서 주인공이 아쉬워하고 있는 장면

주인공이 책상에 앉아서 진짜 내 소원을 백 가지 쓰고 있는 장면 등

2. 자기 모둠에서 정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역할을 정합니다.

(호리병, 지니, 주인공, 엄마, 아빠, 꽃, 책상 등)

3. 모둠별로 정지장면 표현합니다.

4.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인지 알아맞춥니다.

5. 정지장면으로 표현한 소감을 나눕니다.

예: “친구들이 인상 깊은 장면을 정지동작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니 진짜 책의 한 장면 같았어요.”

“친구들이 표현한 장면을 알아맞히는 게 재미있었어요.”

“배경이나 소품이 없어서 맞히기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알아 봐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랑 같은 장면을 나타낸 모둠이 더 있었는데, 모둠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어요.”

“나는 책상 역할을 했는데, 주인공이 팔꿈치로 자꾸 눌러서 간지러웠어요.”

■ 인상 깊은 장면을 즉흥극 하기

1. 자기 모둠에서 즉흥극으로 표현할 장면을 정합니다.

2. 자기 모둠에서 정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역할 정합니다.

(호리병, 지니, 주인공, 엄마, 아빠, 꽃, 책상 등)

3. 모둠별로 즉흥극을 표현합니다.

4. 즉흥극으로 표현한 소감을 나눕니다.

Tip. 등장인물을 그림책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직접 등장하거나 가상 인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달라지면 극의 내용이 원래 그림책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나 자기 주변 사람이 극에 등장하면 극의 내용에 자신의 삶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3. 나에게 대한 그림책 만들기

【만드는 방법】

① 섬네일을 만듭니다.

5장짜리 스크랩북은 표지를 제외하면 펼침면이 4개, 쪽으로는 8쪽이 나옵니다.

섬네일은 보통 채색하지 않고 연필로 그림을 간략하게 그립니다.

선생님은 섬네일을 만드는 단계에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섬네일 단계에서는 글이나 그림을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스크랩북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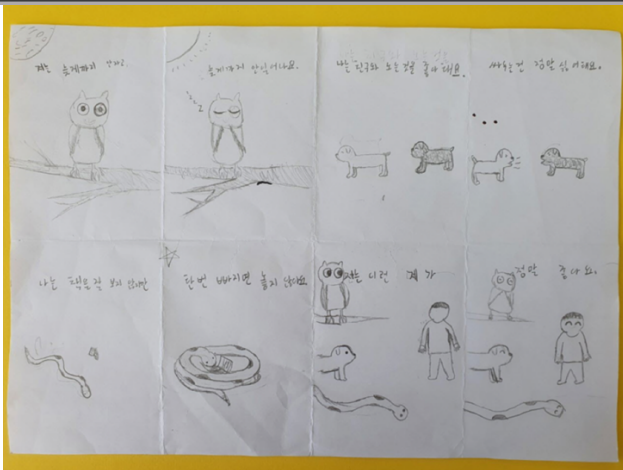
② 더미북을 만듭니다.

더미북은 실제 만들 책보다 작은 크기로 만들고, 그림도 간략하게 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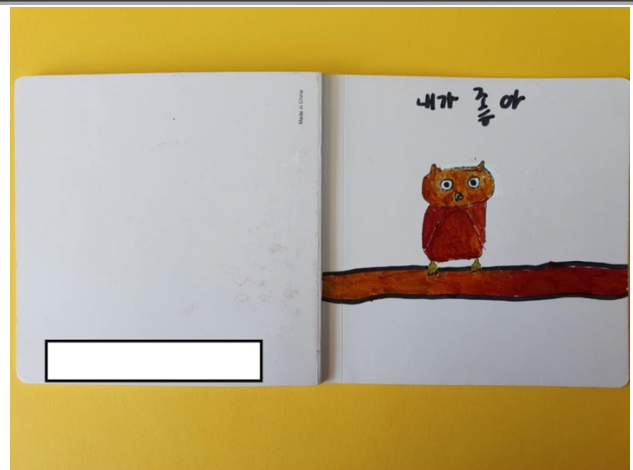
시간이 부족하다면 더미북 만들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글과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여 완성합니다.

④ 완성한 스크랩북은 친구들과 함께 돌려보며 감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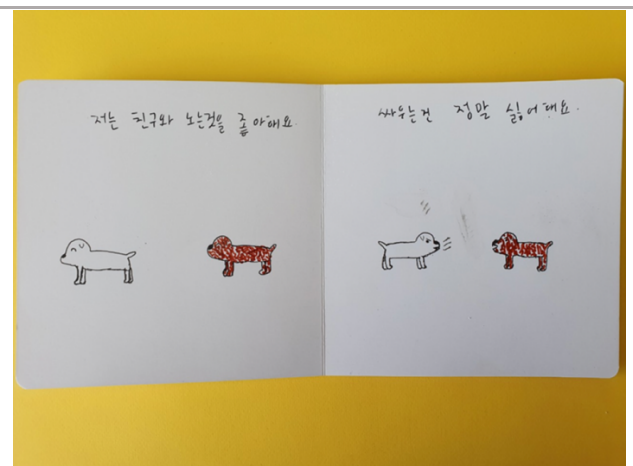
섬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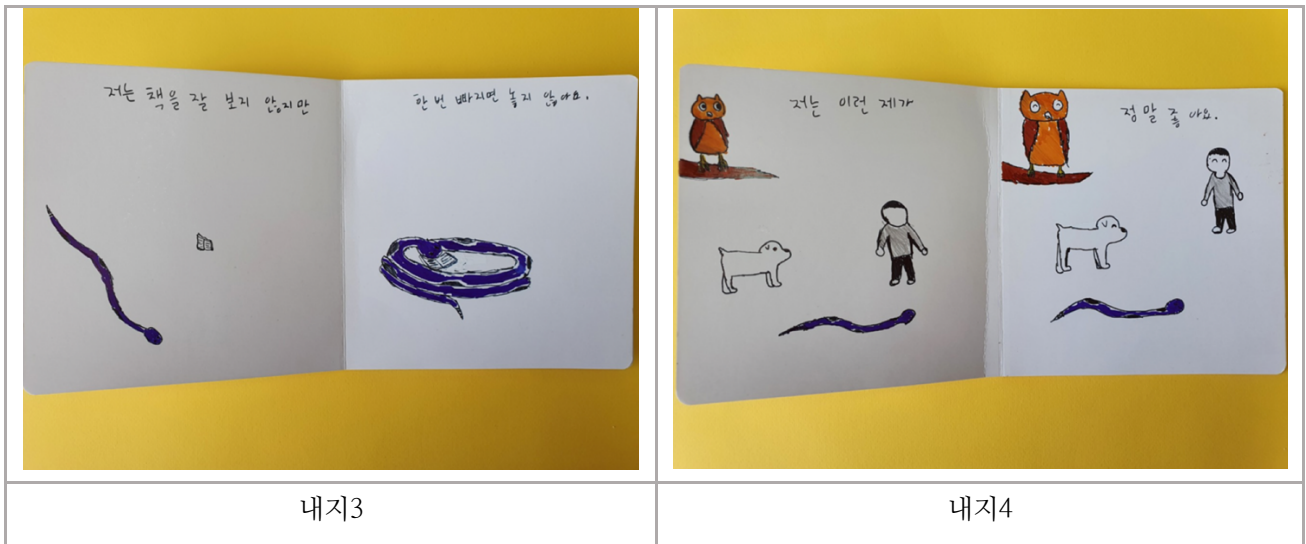
표지



내지1



내지2



4. 활동 소감 나누기

- 『진짜 내 소원』을 읽고 함께 한 활동 소감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그림책의 기법을 사용해서 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이 신났어요.

인상 깊은 장면을 정지장면으로 나타낸 것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잘 맞춰서 신기했어요.

즉흥극을 그림책대로 표현하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대단했어요.